

윌리안 천금 결승골...광주 FC, 승점 7점차 1위

아산에 1-0 승...우승 매직넘버 '2'
전남 드래곤즈 3연승...6위 '경충'



광주FC의 우승에 '6점' 남았다.

광주가 6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2019 K리그2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19분 터진 윌리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전날 2위 부산아이파크가 수원FC와의 32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4점 차로 쫓겼던 광주는 승리와 함께 다시 격차를 7점 차로 벌었다.

광주는 남은 4경기에서 승점 6점을 더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3연승을 노리며 원정길에 나선 광주였지만 아산의 짜임새 있는 공수에 막혀 위기의 전반전을 보냈다.

전반 7분 코너킥 상황을 막은 광주가 3분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산 박세진이 골대 정면에서 찬 왼발 슈팅이 광주 골대 오른쪽으로 비껴갔다.

18분에는 박민서의 중거리포가 광주 골대 위로 넘어가는 등 아산의 공격이 매섭게 진행됐다.

광주 출신의 골키퍼 제중현도 좋은 움직임으로 '진정'을 압박했다.

전반 39분 윌리안이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슈팅을 날렸지만 한발 빠르게 튀어나온 제중현에게 막혔다. 5분 뒤에는 펠리페의 슈팅이 제중현의 품에 안기면서 광주 벤치에서 다시 한번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숨을 고른 광주가 후반전 적극적인 공세로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3분 만에 하정요가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하면서 반격의 시작을 알렸다.

후반 초반 점유율을 74%까지 높인 광주의 공격이 후반 19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재치 있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윌리안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산의 골망을 출렁이게 했다. 윌리안의 시즌 8번째 골이었다.

이후 두 팀은 실세 없이 상대 진영을 오가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쳤다. 막바지 아산의 반격이 이뤄졌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아산 남희철의 헤더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지만 광주는 주어진 3분의



광주FC의 윌리안(가운데)이 6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2019 K리그2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19분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시간을 잘 버티면서 3연승을 신고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도 3연승에 성공하면서 6위까지 치고 올랐다. 전남은 지난 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시전과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수원FC를 끌어 내리고 6위가 됐다.

안방에서 안양과 수원FC를 제압하고 원정길에 오른 전남은 전반 18분 대전 마마초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3연승

을 장식했다. 후반 33분 한찬희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오자, 정재희가 달려들어 제자 슈팅을 날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후반 35분에는 정재희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

울을 얻었다. 프리킥이 선언됐지만 비디오판독 결과 전남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김영욱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승을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병호 끝내기 홈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키움, LG에 기선제압...오늘 2차전

'홈런왕' 박병호(키움)가 극적인 홈런으로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끝냈다.

키움 히어로즈가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19 신한은행 마야카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1차전에서 9회말 터진 4번 타자 박병호의 홈런으로 1-0,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33개의 한방으로 홈런왕을 차지한 박병호가 '가을잔치' 첫 경기에서부터 홈런포를 가동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키움은 몇 차례 득점 기회를 날리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샌즈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2회말에 1사 1·3루까지 만들었지만 김규민의 삼진과 김해성의 2루 땅볼로 득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4회말에는 샌즈의 안타와 김용민의 좌측 2루타로 1사 2·3루가 됐지만, 이지영의 3루 땅볼과 김규민의 헛스윙 삼진으로 다시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8회말 1사 1루에서는 김하성의 견제사가 나오는 등 키움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하지만 6.2이닝을 2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선발 브리검에 이어 조상우-김상수-오주원으로 이어지는 볼펜진까지 LG 타선을 완벽 봉쇄하면서 0-0에서 9회말이 시작됐다.

LG가 106개의 공으로 8회까지 버틴 윌슨에 이어 마무리 고우석을 투입했지만, 9회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 하나만 기록했던 박병호가 고우석의 조구를 공략해 그대로 중앙 담장을 넘겼다. 팽팽한 '0'의 균형을 깨는 중박이 홈런이었다.

한편 키움과 LG는 7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각각 요키시와 차우찬을 선발로 내세워 2차전 승부를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리그 4강 확정...이제부터가 본게임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산생태요양병원·광주레인보우·파트너스 합류... 광일리그 8강 완성

◇무등기 4주 차 경기 전적

■광일리그 16강전

◆1경기(6회 시간 제한승)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 0 3 0 6 - 13

화이트워리어스 0 0 0 0 0 0 - 0

▲승리투수: 김종원

◆2경기(5회 시간 제한승) 도깨비야구단 2 2 0 4 4 - 12

광주레인보우 2 0 8 4 X - 14

▲승리투수: 정광진

◆3경기

청운에너지 1 2 0 0 - 3

파트너스 3 4 2 3 - 12

▲승리투수: 김영복 ▲홈런: 이민욱

(2회 2점·파트너스)

■무등리그 8강전

◆1경기(6회 시간 제한승) 원포인트이엔지 2 0 6 3 2 2 - 15

대영토건 3 3 0 0 0 3 - 9

▲승리투수: 김기남 ▲홈런: 김지성(3회 1점·원포인트이엔지)

◆2경기(4회 시간 제한승) 전대OB 0 0 0 7 - 7

태평법률사무소 0 0 5 8 - 13

▲승리투수: 고현무

◆3경기(6회 시간 제한승) 카펫진남 0 1 1 0 5 0 - 7

자연환경 2 0 2 0 0 4 - 8

▲승리투수: 김만철

◆제4경기

포비스야구단 1 0 0 2 0 3 0 - 6

END 3 0 1 0 0 7 X - 11

▲승리투수: 양진 ▲홈런: 김중호(1회 3점·END) 국준(6회 2점·END)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결승 진출을 다룬 4개 팀이 확정됐다. 광일리그 8강 팀도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주 차 경기가 무등중야구장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6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8강전 4경기를 통해 원포인트이엔지, 태평법률사무소, 자연환경, END의 무등리그 4강이 완성됐다.

원포인트이엔지는 2-6의 승부를 3회 6득점으로 뒤집으면서 대영토건을 상대로 15-9, 승리를 거뒀다.

선발 김기남이 6이닝을 책임지면서 승리투수가 됐고, KIA 출신의 김지성이 3회 솔로포를 터트리는데 멀티히트와 함께 4차례 출루에 성공하면서 맹활약했다.

태평법률사무소는 나홀로 5타점을 올린 박용태의 화력을 앞세워 13-7로 전대 OB를 제압했다.

0-0으로 맞선 3회말 태평법률사무소가 대거 5점을 뽑았지만 4회말 7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내줬다. 하지만 태평법률사무소가 4회말 8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 재역전극으로 승리를 만들었다.

자연환경은 정승연의 끝내기 안타로 카펫진남을 8-7로 누르고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4-2로 앞선 5회초 자연환경이 5실점을 하며 리드를 내줬다. 5회말 공격을 수확 없이 끝낸 자연환경이 4-7에서 6회말 공격에 들어갔다. 그리고 7-7까지 따라붙은 2사 2루에서 정승연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극적인 승리가 연출됐다.

END도 치열한 승부 끝에 11-6으로 포비스야구단을 꺾었다.

1회초 선제점을 내준 END가 이어진 공격에서 김중호의 스리런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4-6으로 역전된 6회말에는 다시 7점을 만들어내며 화력을 과시했다. END 국준은 9-6으로 앞선 6회말 투런포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6일 광주 북구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원포인트이엔지와 대영토건의 8강경기에서 원포인트이엔지가 3-6으로 뒤지던 3회초 무사 김준하 타석 때 1루 주자 이경호가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일에는 광일리그 8강 남은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저스티스, 카이로스, 레드워리어스, 에프나인, 어벤져스가 광일리그 8강에 진출한 가운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광주레인보우, 파트너스가 남은 8강 자리를 차지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13-0, 영봉승으로 화이트워리어스를 꺾었다. 선발 김종원이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고, 타석에서는 배남아가 3루타 2개로 4타점을 만들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화이트워리어스의 선발 김병희(56)는 '노장 투혼'을 발휘했지만 팀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광주레인보우는 도깨비야구단과 36점을 합작하는 화려한 끝에 14-12로 이겼다.

광주레인보우는 2-4로 뒤진 3회 8점을 뺏으며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레인보우의 정광진이 선발로 4이닝을 책임졌고, 타석에서도 3차례 출루하며 눈길을 끌었다. 도깨비야구단 이태현의 3안타 3도루 4득점 활약은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파트너스는 이민욱의 투런포 등을 묶어 청운에너지를 12-3으로 꺾고, 8강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파트너스가 선취점을 내줬지만 1회말 1-3 역전에 성공했다. 파트너스는 2회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민욱의 홈런 등으로 다시 7-3으로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김영복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길오가 3-4회를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